

슬픔 마주하며 삶으로 향하는 마음의 결

함진원 시인 네 번째 시집 ‘가만히 불러 보는 이름’



개인적 정서·역사 장면 등
4부 60편으로 펼쳐내

‘자정(自淨)과 위무의 감각으로 걸어 올린 오늘
의 시’
함진원(사진) 시인이 네 번째 시집 ‘가만히 불러
보는 이름’ (문학들刊)을 출간했다.
총 4부 60편으로 구성된 이번 시집은 지나온 삶의
결을 조용히 더듬으며, 슬픔을 응시하는 태도와 그
슬픔을 스스로 털어내는 자정의 시간을 함께 담아
냈다.
시집의 품격은 ‘계절을 모아 공손한 마음으로 꽃
씨를 받으면서 다시 내일을 품에 안았다’는 시인의
말처럼, 시인의 고백과 결을 같이한다.
시인은 젊은 날의 후회, 떠나보낸 인연, 마음 한편
에 남은 빈자리 등을 되돌아보면서도 그 기억을 감
정적으로 쏟아내지는 않는다.
누구에게나 슬픔은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슬픔과
어떤 자세로 마주하느냐다. 시인은 깊은 슬픔과 허
무의 순간에도 스스로 위무와 자정의 시간을 통과
하며 희망의 불씨를 지피려 한다.

‘망초꽃 앞에서’의 “뒤돌아보지 말고 가야 해/뜨
건 밥에 된장국 훌훌 마시고/일어나거나/힘들고 못
살것으면 항구내 살면 되제”라는 문장은 이러한 시
인의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번 시집에서 눈에 띄는 지점은 슬픔을 개인적
정서에 머물게 하지 않고, 사회적 현실로 넓혀간다는
점이다.
시인은 ‘희망’에서 “우리는 산으로, 들판으로 못
가고/양심을 들고 광장으로 간다”라고 밝히며, 시
대의 무게와 마주하는 인간의 선택을 묻는다.
남태령 고개를 넘어 계엄령에 맞선 이웃(‘부드러
운 고드름’ 중), 농성장의 새벽(‘바디메오 목소리’
중), 아우내 만세 소리(‘비에 젖은 것들은 그리움으
로 온다’ 중) 등 시편은 한국 현대사의 장면들을 현
재로 다시 불러온다.
특히 ‘또, 또또’는 노동자의 반복된 죽음을 향한
분노를 담아내며 “왜 모른 척 혼자만 잘살면 그만인
가요”라는 직설적 질문을 던진다. 사회적 상처를 견
디는 목소리가 시 안에서 거칠어지지 않고, 끝내 삶
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 이 시집의 특징
이다.
이처럼 견딜 수 없는 비애와 분노의 극단에서도
시인의 시가 아름다운 것은 슬픔을 껴안으려는 그
의 자세 때문이다. “너무 오래 머물렀습니다/가만



히 불러 보는 이름이 있어서/다행인 요즘/섬기는
일도, 사랑할 일도/잠깐, 쉬었다 가는 길/흔다면 어
떨습니까”(‘누구신지요’ 중)라는 구절은 그 마음의
방향을 잘 드러낸다.
고재종 시인은 이번 시집을 두고 “섬기고 사랑하
며 자발적 가난의 길을 가는 순명의 삶을 보여준다”
고 평했다.
한편 함진원 시인은 함평 출생으로, 조선대 대학
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무등일보’ 신
춘문에 당선을 통해 등단했다. 시집 ‘인적 드문 숲길’
은 시작되었네, ‘푸성귀 한 잎 집으로 가고 있다’,
‘눈 맑은 낙타를 만났다’ 등을 펴냈다. 현재 기린 독
서문화교육원과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며 치유 글쓰
기와 독서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최명진 기자



새로 나온 책



▲계엄수첩=박종화 저자
2024년 12월3일, 이른바 ‘계엄 사태’
이후 122일 동안의 소회를 250편의 시
로 기록한 시집 ‘계엄수첩’이 나와 눈
길을 끈다. 저자는 그날 이후 거리로 나
섰고 광화문 겨울 천막에서 새우잠을
 잤다. 이 시집은 그 현장의 기록이다. 계엄이 터지고 희
비가 교차하던 순간들, 한 시민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태에 대한 분노와 반성과 희망의 감정이 고스란
히 담겼다. 송경동 시인은 이번 시집에 대해 “힘한 시대
와 광장의 노래꾼으로, 시인으로, 붓쟁이로 살아온 그의
평생이 담긴 눈물과 분노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문학들·1만8천원



▲공손한 시간=차행득 저자
이번 시집에서 특히 주목하는 시편
은 말에 관한 탐구다. 말의 미묘한 감각
을 통해 시인의 정신성과 지향하는 세
계를 읽어내기도 하고, 존재를 규명하
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실존을 탐구한
시편들에서는 시인의 정신이 지향하는 세계를 진중한
음성으로 고백하는데, 욕망하지 않으려는 품성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은 지난한 것이
어서 반성과 성찰의 태도를 갖는다. 강경호 시인은 이
시집에 대해 “여성의식, 세계의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
가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해 미
학적 경험으로 후기 근대의 경계를 그려내고 있다”고
평했다. /시와사람·1만2천원



▲그리하여, 나는=광주문학아카데미
미글
광주문학아카데미의 다섯 번째 시
집이 나왔다. 강경호·고성만·김강호·
김화정·박정호·이승희·임성규·정혜
숙·조우라·최양숙 10명 회원들의 작품
성과를 한데 모아 묶은 공동 작품집이다. 삶과 죽음이라
는 본질적인 문제부터 내밀한 미적 자의식, 사회·역사
적 상상력에 이르기까지 주제의식도 다양하다. 김경 문
학평론가는 “이들이 보여주는 질서와 자유, 규제와 파
격, 전통과 현대라는 대응쌍의 어느 한 축으로도 기울어
지지 않는 그 사이의 미학이 곧 우리 현대시조의 현주소
라 할 수 있다”고 평했다. /다인숲·1만원



▲구 선생 구구=박나현 글, 심보영
그림
책의 주인공 산이에게 어느 날 비둘
기 한 마리가 날아온다. 3년간 수학 학
원 강원에서 살아서 구구단쯤은 적적
외우는 이 비둘기는 자신을 곱셈구구
선생님으로 삼는 게 어떠냐고 묻는다. 과연 산이는 이
수상한 비둘기와 함께 구구단을 끝까지 외울 수 있을까.
이 책은 구구단을 향한 아홉 살의 고민을 유머러스하게
그려 낸 작품이다. 구구단을 아직 배우지 않은 어린이
들, 이미 깨우친 어린이든 누구나 한 번은 겪는 이 고난
속에서 산이와 함께 웃고 울다 보면 어느새 마음 한구석
에 용기가 자라나 있을 것이다. /사계절·1만2천원

어린이 시선으로 드러낸 불평등의 민낯

방서현 작가 장편소설 ‘내가 버린 도시, 서울’ 출간



초등학생의 눈을 통해 바라본 대도시 서울의 모습은 어떨까.
방서현 작가가 신작 장편소설 ‘내가 버린 도시, 서울’ (문이
당刊)을 출간했다. 전작 ‘좀비시대’ (2022)에 이어 발표한 두
번째 장편이다.
주인공 ‘나’는 초등학생 남자아이로, 학교를 다니기 시작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된다.
학교에는 달동네·주택가·아파트·고급 빌라촌 등 서로 다
른 배경의 아이들이 모여 있다. 이들은 부모의 재산과 생활
수준에 따라 친구들을 ‘흙수저·은수저·금수저’로 부르고 사
는 동네까지 수저 색으로 구분한다. 달동네는 ‘똥수저 동네’,

주택가는 ‘흙수저 동네’, 아파트는 ‘은수
저 동네’, 고급 빌라촌은 ‘금수저 동네’로
불린다.
소설 속 4개의 동네는 실제 지명 대신 온
전히 ‘수저’로 표상된다. 도로 하나를 사이
에 두고도 삶의 격차가 극명하게 갈린다.
주인공 ‘나’는 이 가운데 ‘똥수저 동네’로 불리는 산동네에
서 부모 없이 할머니와 살아간다.
이 책에서 ‘학교’는 서로를 알아가며 자라는 공간이 아니
라 오히려 서열을 만드는 장으로 변한다.
‘우리 집 아빠 차 소개하기’, ‘우리 집 자랑거리 써오기’와
같은 숙제는 아이들의 형편을 노출시키고, 이는 동네·재산·
외모·부모 능력 등을 기준으로 한 세밀한 서열화로 이어진

다. 아이들은 도덕이나 인성보다 ‘자기보다 낮다고 여기는
아이를 무시해도 된다’는 규칙을 체득한다.
이런 환경은 주인공의 사고에도 결핍과 체념을 각인시킨
다. 오래 그림을 그려왔지만 이를 미래의 진로로 떠올리지
못하고, 화폭에는 상상력과 꿈이 비어 있다.
유일한 보호자인 할머니마저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나’
는 더 깊은 어둠 속에 놓인다. 서울을 떠난다고 해도 그곳엔
또 다른 수저 계급의 도시가 있을 뿐이라는 냉혹한 시각도
함께한다. 이미 ‘나’를 버린 서울을 버려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작가의 메시지가 담겼다.
최의진 문학평론가는 이 책에 대해 “전작 ‘좀비시대’에서
경으로 깔려 있던 계층 간 격차가 보다 전면으로 등장한다.
앞선 작품에서 주인공이 보여주던 저항도 이곳에서는 한숨
과 의문으로 바뀌었다”며 “주인공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양극화가 재난처럼 삶을 집어삼키고 있지만, 정작 아무도 지
적하지 않는 고요하고도 비극적인 풍경이 드러난다”고 평했
다. /최명진 기자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